“北 속임수 쓰면 美 보복 어떻게 감당하겠나”

유엔총회 참석 문 대통령 김 위원장 언급 소개

“위원장, 북 경제 발전 위해 핵 포기할 것으로 믿어”
군사 긴장 완화는 ‘투 트랙’
북미 ‘비핵화’·남북 ‘재래식’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서명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세계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못 믿겠다’, ‘속임수다’, ‘시간 끌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 직후 가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김 위원장 언급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핵·미사일로 도발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협했기 때문에 아직도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세계 많은 사람이 불신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가급적 김 위원장과 많은 시간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했고 한편으로는 회담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김 위원장과 제가 만나 대화하는 모습과 김 위원장의 사람 됨됨이를 전 세계인들이 직접 보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연장자를 예우하는 예의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했다”며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그런 신뢰를 준다면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나의 주관적 판단뿐 아니라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진정성을 믿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의 결실을 이루려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비핵화는 당연히 북미 사이에 프로세스가 연계돼야 하며, 또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그것은 남북 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선언에서 남북 간에는 초보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뤄졌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다음에는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그에 대응한 우리 군의 무기, 그리고 좀 더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남북 화해에 정치적 이해 따지는 건 역사 흐름 거스르는 일”

‘방북’ 김희중 대주교 회견

제3차 남북정상회담 종교계 특별수행원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간 평양을 방문한 천주교광주대교구 김희중〈사진〉 대주교는 “남북 간 화해와 관련 정치적·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져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희중 대주교는 최근 광주 서구 천주교광주대교구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주교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정책에 다른 뜻이 있는 분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일부 야당의 뜻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반도에 새 하늘, 새 땅이 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서로 사심 없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주교는 이번 방북 일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북 정상의 천지 방문을 꼽았다. “두 정상이 서로 손을 들고 웃는 장면은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조금 더 풀리는 메시지로 생각됐다. 또한 김정숙, 리설주 여사가 팔짱끼고 내려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어 그는 “삼지연 다리 위의 대화 장면은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를 떠올리게 했다”며 “두 정상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주교는 “어느 자리에선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는 신뢰 관계뿐만 아니라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는데, 통상적인 신뢰 차원보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10월로 예정된 북 예술단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이 광주에서 열리기를 바라는 뜻을 북한 당국자에게 전한 일화도 소개했다. 김 대주교는 “북측 인사에게 기왕이면 광주에서도 ‘가을이 왔다’ 공연을 선보여 달라”고 부탁했다”며 “옆에 있던 북한 인민 가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광주도 가볼 수 있도록 초대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작금의 평화 분위기 정착을 위한 종교 차원의 기여 방안도 밝혔다. 김 대주교는 “한국종교회평화회의 대표회장으로서 백악관과 유엔에 편지를 보내 ‘남북 관계가 향상되고 있으니 경제제재를 풀어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고 하겠다”며 “바티칸회의에도 참석해 교황께도 남북 평화를 기원하도록 청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비엔날레 2관인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장진 작가의 ‘poetic moment’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추석 연휴 수묵향연에 ‘푹’

수묵비엔날레 5만7천여명 관람

추석 연휴 기간 목포·진도를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오감만족 수묵 향연’에 푹 빠졌다.

추석 다음날인 25일 하루에만 1만 7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연휴 기간 총 관람객은 5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람객들의 발길은 어머니 품 같은 따스한 보름달을 그윽한 묵향으로 담은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대표적인 작품이 1관(목포문화예술회관)에 전시 중인 장안순 작가의 ‘갈대-재즈(Jazz)’와 6관(진도옥산미술관) 강금복 작가의 ‘달빛 흐르는 겨울산’ 등이다. ‘달빛 흐르는 겨울산’은 ‘구름을 그려 달을 드러나게 한다’는 전통회화의 홍운탁월(烘雲托月) 기법을 활용했다. 풍요로움과 완전체를 상징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듯 두 손을 모은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이다인(21) 씨는 ‘갈대-재즈(Jazz)’를 감상하며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한 기법과 내로라하는 작가들의 새로운 현대적 작품을 보고 많은 영감을 얻었다. 추석이라 눈여겨본 보름달 작품들이 모두가 기법과 운치가 달라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관람객들은 직접 수묵을 그려보고, VR(가상현실)로 즐기며, 국악공연과 어우러진 오감만족 수묵 향연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베트남 단체관람객 186명과 함께 전시관을 찾은 호 티 디엠(39) 씨는 “목포가 문화도시라고 들었는데 비엔날레 작품을 감상하니 역시나 문화도시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이 있지만 여기서 보니 훨씬 다양하고 멋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전남에 올들어 204개 기업 5조4천억 투자협약

올들어 전남지역에 204개 기업이 5조 4000여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올해 들어 204개 기업과 모두 5조4237억원을 투자해 6300여 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에 63개 기업을 비롯해 담양 18개, 영광 17개, 강진 11개, 목포 10개, 장흥 9개, 영암·완도 각각 8개, 진도 7개, 해남 6개, 장성 5개, 기타 9개 시·군에 42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다.

업종별로는 식품 가공이 48개로 가장 많았으며 에너지 46개, 철강·기계 23개, 석유화학 6개, 전기차 분야 5개 등이었다.

투자협약 기업 가운데 70%는 신규 투자,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기업은 광주권이 31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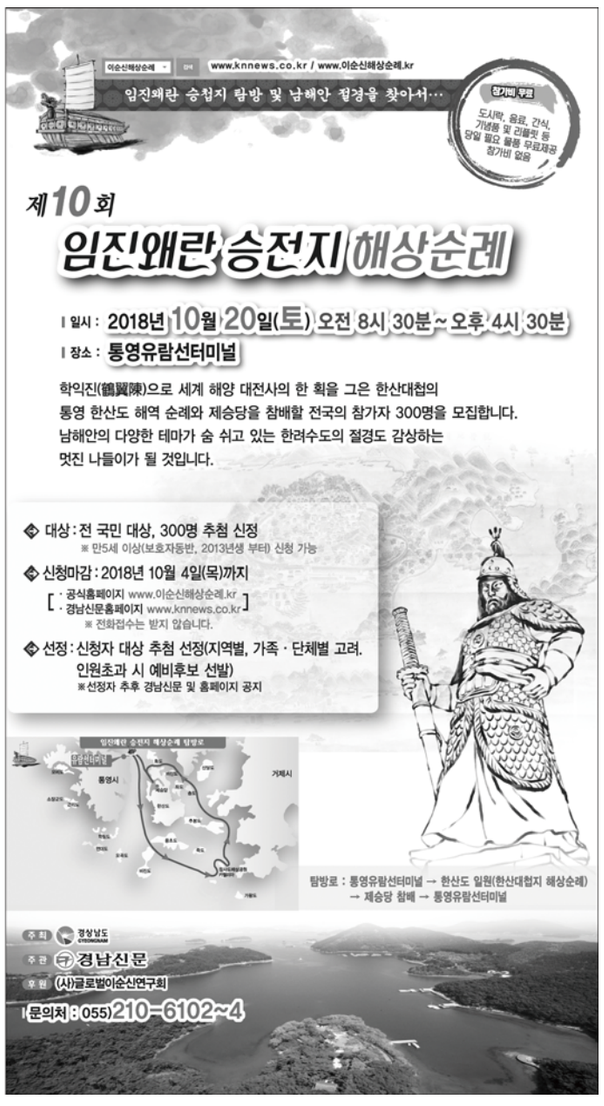
임 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당일 신속처리 010-6834-7400

투자자모집
경/공매 입찰/낙찰물건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